

## 주니어 내추럴리스트 스테이션의 폐기물 재이용 노력

- 1 지자체명 러시아 연해주 지방
- 2 발표자명 (소속명) 클리모비치 예카테리나  
알세니예프 시립 제 4 종합교육학교
- 3 활동명 생활폐기물의 재이용
- 4 활동기간 2000~2005 년
- 5 활동장소 연해주 지방, 알세니예프시, 주니어 내추럴리스트 스테이션
- 6 활동참가인원 95 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알세니예프 시내의 생활 폐기물 증가

### 8 발표 요지

옛부터 인류는 제품의 제조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15 세기 초부터 폐기물 발생은 환경문제로서 취급되어 졌으며 19-20 세기에는 꽤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수거, 처리, 매립 등을 포함한 폐기물 적정 처리 문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그 해결을 놓고 다양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폐기물 감량 및 재이용이다. 알세니예프 시 주니어 내추럴리스트 스테이션의 어린이들도 열심히 쓰레기를 줄이고 가능한 한 생활 폐기물을 재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테이션에서는 이미 25 년간에 걸쳐 「쓰레기」라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 사업 내용은 생활 폐기물을 장식 예술, 조원(造園), 가구제조 등에 사용해 가능한 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또 2004 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3 개 사업-「사용이 끝난 찻잎」- 사용이 끝난 찻잎을 흙 만들기에 사용, 「팻트병」- 팻트병을 가구제조, 조원에 사용, 「BUM」- 폐지를 모아서 재활용 전용 수거장으로 운반한다. 올해 모든 학교에 이러한 대처를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사업 실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조원
- 장식 예술
- 원예

조원을 위해 대다수의 생활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테이션에서는 백조모양의 오래된 램프를 사용해 멋진 분수를 만들었다. 최근 시립 도서관에서 물려 받은 오래된 책장은 식물 받침대가 되었다. 꽃 받침대가 반대로 된 오래된 시소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다. 큰 쓰레기통이나 오래된 통(대나 금속의 테를 둘러서 쥘)을 다시 색칠해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물 화분으로는 요플레 등의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고 장식으로는 과일 포장지를 사용한다. 물뿌리개(오래된 것), 구두 등은 동시에 장식품과 화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울타리 만들기에는 페타이어도 자주 사용된다. 모래를 넣은 팻트병을 흙속에 반쯤 묻었더니 화단 등의 공간을 나누는 멋진 울타리가 되었다.

장식 예술에는 실로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 쓸모없는 것들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살리고 있다. 종이 박스, 골판지 상자 등으로 다양한 모양이나 플레임, 그림 받침대 등을 만들고 있다. 오래된 벽지, 달력 등으로 액자 장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액체벽지는 꽃병 장식으로 사용한다. 섬유를 사용하는 방법도 폭 넓어 끈, 실, 천조각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천조각으로 발매트, 인형, 실이나 끈으로 캐시 포트를 만든다. 팻트병이나 병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병은 장식을 한 후, 꽃병으로 사용된다. 색유리의 파편은 그림 장식으로 사용된다. 장난감이나 가정용 잡화를 만들 때 체인 파편, 오래된 목걸이, 발매트, 색연필을 깎은 후의 쓰레기까지 사용된다.

장식 예술 분야에서 가구나 일상품도 만들어진다. 팻트병으로 의자, 테이블 다리, 재털이, 다양한 받침대를 만든다. 그 밖에 쓸모없어진 것도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4년에는 스테이션에서 불필요한 물건에서 가장 좋은 쓰레기통을 고르는 경연대회가 열렸다. 또 어린이들은 예쁜 꽃병을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오래된 접시, 물뿌리개, 병 등을 기본 재료로 그 위에 좋아하는 것을 붙여 (예를들어 캄버스, 액체벽지, 그물 등) 또 그 위에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장식을 붙인다.

결과적으로는 필요없는 것을 재료로 어린이의 손으로 특이한 물건이 만들어진다.

원예에 사용되는 생활 폐기물의 종류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하나의 예로서는 사용하고 남은 찻잎이다. 그것을 흙에 섞어 퇴비로서 토양 개량에 사용하고 있다.

찻잎 외에 화분의 배수재(排水材)로서 발포스티렌(잘게 부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 화단의 경계선을 만들 때 골판지가 사용된다. 그 이유는 건조도 방지하고 화단을 걷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이들이 스테이션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의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업 중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주위의 자연환경을 정화하고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주 즐겁고 또한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들어 각종 상품의 구입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자신의 작품을 팔 수도 있다.

훗날 우리들은 이 경험을 연해주 지방의 다른 학교에도 전하고 싶다.

## 9 활동 성과

어린이들이 시내 정화 사업을 실시, 생활 폐기물 재이용 방법을 배웠다.